법무사 입문하기

Learning Guide Book

01 법무사란 무엇인가?

■ 법무사란?

종전의 사법서사를 개칭한 것으로 法曹의 一員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그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 제출대행 외에 법원 •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제출대행과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이다.
단순히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준비서면, 조정신청, 독촉사건, 비송사건의 신청, 고소 • 고발장 작성 등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 주는 매력있는 전문직업으로 볼 수 있다.

■ 법무사의 진로

-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시험합격자의 일부는 기존 법무사 사무소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합격자의 대부분은 개인사무소 및 합동적인 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고 있다.

■ 법무사 마크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문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 곁의 친근한 법률조력자입니다.

정육각형은 육법과 완전성의 의미를 지닌 도형으로, 법무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의 수행을 의미한다.

+

태양은 법무사의 무한한 발전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한 한다.

+

손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기여하는 법무사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상징화 한 것이다.

▶

"법"자는 국민의 법생활 속에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법률서비스를 법무사의 주업무로 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업무임을 표현한 것이다.

■ 법무사의 주요업무

◎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가압류, 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 상소장 및 그 이유서
-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 비송사건 신청서
- 독촉, 화해, 공시최고 등의 신청서
- 공탁신청서
- 형사고소, 고발장
- 고소 취소장
- 진정서, 탄원서등

◎ 법원과 검찰청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류관계를 확정하는 각종의 계약서, 합의서
-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 최고서, 통지서
- 검찰 이외의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등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부동산등기 신청서 (선박, 입목, 광장, 광업등기 포함)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 · 담보물권의 설정 · 처분등기, 각종 마소 · 변경, 기타 등기 (164가지)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 회사의 설립 · 합병 · 조직등기, 자본증가 · 감소등기, 사채발행등기, 지배인이나 이사등의 선임 · 종임등기 (65가지)

법률자문 및 상담	개인의 법률생활, 개인사업자 · 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등기 분야	부동산관련 등기, 회사관련 등기 등 등기업무 전반
소송 분야	민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 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경매 분야	권리관계 분석, 경매신청, 입찰대리
민사 신청	가사, 공탁, 가압류 · 가처분
개인회생, 파산 분야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

"법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젊은 법무사의 몫이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사건의 작성 · 신청대리, 경매사건 등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신청대리를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각 법무사 사무실마다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건수임수의 20-30%가 민사나 신청사건, 70-80%가 등기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몇 년에 걸친 부동산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등기사건은 1279만 건(2006년) → 1177만 건(2007년) →1150만 건(2008년) → 1100만 건(2009년) 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일부 법무사는 사무실 운영 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하여 법무사 업계의 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법무사 업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보통 언급되는 화두는 첫째,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사건의 감소, 둘째, 타전문직 특히 변호사 업계로부터의 도전, 셋째 전자등기 및 전자소송절차에 의한 본인사건의 증가 등이 있다.

첫째 문제, 수년간 에 걸쳐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등기사건이나 법무사사건 자체가 감소하여 사무실 운영에 긴장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법무사 업계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 전문 직종 모두가 같이 겪고 있는 일종의 신종플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개업하려면 수억원 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타전문직의 경우에는 그 위기감이 법무사 업계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의 경험을 말한다면 법무사 업계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다고 말할 수 있다. 개업 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쓰나미처럼 다가온 IMF 사태 시에도 오히려 가압류 · 가처분사건이 폭증하였고, 그 시점이 지나니 바로 DJ 정권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법인설립 및 관련 상업등기사건이 엄청 많아졌고, 그 다음 정권시대에는 부동산경기의 호황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담보대출사건이, 그 이후에는 생각지도 않던 개인회생 · 파산 사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던 점을 상기하기 때문이다. 법무사 업계가 100년 이상 시대의 부침에 대응하여 항상 경쟁력을 가지고 잘 적응해왔듯이 현재의 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으로 자신한다.

둘째 문제, 타전문직 특히 변호사업계로부터의 도전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해방 이후 그 동안 변호사업계는 송무위주의 법률서비스에 주로 집중하고, 법무사업계는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신청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의 수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는 변호사업계에서는 종래 법무사업무라고 치부하였던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사건 등에도 새로운 관심의 눈을 돌리게 되었고, 따라서 종래 법무사업계에서 처리하던 상기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이 변호사업계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에서 생각해본다면 수 십년동안 법무사가 처리해오던 위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사건 등이 졸지에 변호사업무에 귀속되고 법무사 직역은 순식간에 직역 자체가 스스로 소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에게 몸을 낮추어 다가가 질 좋고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법무사업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법무사가 취득하게 된다면 법무사의 위상을 고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문제, 전자등기신청 및 전자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본인사건이 증가하고 이는 법무사업계의 사건수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먼저 전자등기신청 즉 인터넷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되면 법무사업계는 일시에 도산하지 않을 까 하는 근거없는 걱정과 우려는 10년 전에도 있었으나 인터넷등기신청제도가 200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그 결과를 보면 법무사업계에의 부정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금융권과 거래를 하는 법무사사무소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을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전자신청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나 이는 통계적인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므로 전자등기신청이 법무사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곧 전자소송절차(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이 굳이 관할법원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소장이나 서류를 작성?제출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판결문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가 도입된다면, 법무사가 작성 제출하는 소장작성업무의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법무사업계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는 민사소송분야를, 2013년까지는 신청 · 집행사건 등 소송절차 전반이 전자소송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이 시행되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되는 개인송무사건이 당장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전자소송 역시 인터넷 등기신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대법원에 출석해 사용자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법률적 자문을 기초로 하는 송무업무의 특성상 일반국민들이 스스로 직접 전자소송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조직역통합(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을 변호사로 통합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들 직역의 신규진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안)의 문제가 국회에서 일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린다.

현재 전국의 법무사들은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안일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매전문법무사, 송무전문법무사, 상업등기전문법무사, 특수법인등기전문법무사, 개명전문법무사, 상속등기전문법무사, 개인회생전문법무사, 가압류가처분전문법무사, 가사사건전문법무사, 호적전문법무사, 비송사건전문법무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는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 시민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젊은 법무사 들은 새로이 도입되는 성년후견인제도, 동산저당권등기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법무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험출신 젊은 법무사들이 합격 후에 법무사 업무의 직역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법무사업무의 현실이 현재 그리 밝은 것은 아니지만(모든 전문직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미래가 어두운 것은 전혀 아니다. 모두 다 노력하여 단계적으로 법무사업무의 직역을 확대하여 간다면 법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그 밝은 미래는 실력과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젊은 법무사의 몫이다.

03 법무사 시험제도

■ 시험 실시기관은?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선발예정인원?

• 일반응시자 : 120명

■ 시험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구술시험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최종합격자(120명, 2012년 기준) 3배수인 360명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인원을 결정한다.

■ 시험시간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교시	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시험시행 일정 및 공고방법

구분		시행일정	공고방법
제1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6월 초	대법원 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서계일보에 공고
	시험일자	매년 6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8월 초	대법원 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서계일보에 공고
제2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8월 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9월 중순(금,토 양일)	
	합격자 발표	매년 11월 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제3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11월 말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1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2월 초	관보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2012년 시험기준〉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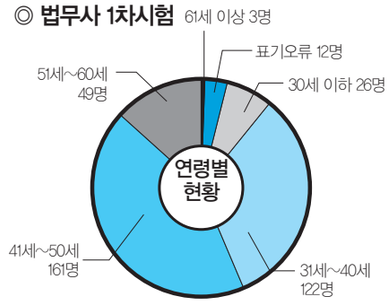
04 법무사 합격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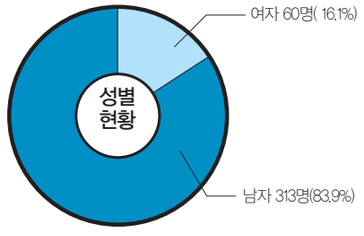
■ 합격자 통계

연도(회수)	출원인원	1차 합격인원	1차 커트라인	2차 합격인원	2차 커트라인	본원출신 합격자
92년(1회)	8,259명	311명	65.5	59명	56.77	33명
94년(2회)	4,438명	301명	71.5	60명	56.70	46명
96년(3회)	3,272명	421명	70	80명	57.75	65명
98년(4회)	6,622명	127명	73.5	30명	61.41	24명
99년(5회)	9,229명	154명	80.5	52명	52.50	43명
00년(6회)	8,044명	248명	83	80명	54.70	64명
01년(7회)	6,706명	312명	84	101명	57.25	73명
02년(8회)	6,697명	307명	85.5	100명	51.68	69명
03년(9회)	6,633명	318명	85	100명	53.375	71명
04년(10회)	6,588명	388명	86	121명	54.125	93명
05년(11회)	5,602명	365명	83	122명	51.375	86명
06년(12회)	5,158명	373명	77.5	123명	53.00	104명
07년(13회)	4,811명	386명	–	121명	53.00	94명
08년(14회)	4,340명	364명	73.5	120명	41.813	97명
09년(15회)	4,266명	382명	72.5	120명	55.587	98명
10년(16회)	4,100명	365명	75.0	121명	63.375	102명
11년(17회)	3,798명	370명	73.0	121명	53.313	99명
12년(18회)	3,511명	373명	71.5	121명	53.625	104명

■ 2012년 제18회 합격자 현황

◎ 법무사 1차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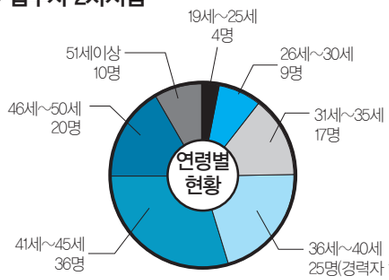




◎ 1차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현황 (2012년 기준)

제1과목	헌법 · 상법	69.689
제2과목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5.780
제3과목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72.831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77.281
전 과목 평균		76.395

◎ 법무사 2차시험



◎ 2차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현황 (2012년 기준)

제1과목	민법	63.892
제2과목	형법 · 형사소송법	59.913
제3과목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55.496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52.046
전 과목 평균		57.836

■ 시험 준비 단계

◎ 시험 출제수준 및 경향의 파악

사전준비 없이 막연한 판단으로 법무사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 방법으로서 법무사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기출문제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제빈도 및 경향을 정확히 가늠해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첫 걸음이다.

◎ 수험대책의 구체적 설정 및 교재의 선택

시험 출제수준 및 경향을 꼼꼼히 파악했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수험방식을 선택 해야한다. –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험방식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량과 시간배분 및 학습장소, 학원강의 등 적절히 선택해야한다. 학습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력을 높이고 법무사시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실력 쌓기 단계

◎ 각 과목별 학습시간의 적절한 배분

과목별 내용은 초보자가 처음 접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과목별 학습목표량과 학습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요약서 또는 실전모의고사 등의 순서로 전체일정에 따라 학습하면 빠른시일 내 효과적으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다.

◎ 전문학원 강의 수강

시험과목의 대부분이 법률과목이어서 각 과목의 기본개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독학은 해당 과목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기보다는 평면적인 단순암기식 학습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독학의 결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법무사시험 전문학원의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실력 점검 단계

◎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취약과목

수험생 스스로 사전 자기평가를 통하여 고득점을 목표로 집중학습 전략과목을 정하는 것과 취약과목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과락'에 해당되면 전체 평균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합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확한 지식의 우선적 습득 및 객관식 시험요령의 파악

각 과목별 특성 파악을 통한 전체적인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 정확한지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릇된 지식은 수험공부에 있어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에서 지식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제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집을 통한 실력점검 및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 최종 마무리 단계

◎ 합격을 좌우하는 2개월 전 마무리 학습

42.195㎞, 마라톤의 완주거리이다. 법무사시험 2개월 전은 이 마라톤 코스 중 35㎞지점이라 할 수 있다.이는 마라톤 코스 중 인간이 신체적인 극한에 달하는 지점이자 수험생이 가장 극심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다. 또한 바로 이곳이 수험생활에 있어 마지막 승부가 가늠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시험 2개월 전부터는 최대한 정신력을 집중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때의 학습효과는 지난 몇 개월 간의 학습가치와 맞먹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부해 온 것을 법무사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암기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외우고, 문제집이나 요약서, 실전모의고사 등 마무리 교재를 통해 실전감각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전에 임한다는 것은 이제가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 자신의 두뇌에 갈무리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전날 무리하게 공부에만 열중할 경우, 정작 법무사시험 당일 컨디션을 저하시켜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충분한 숙면은 법무사시험 당일 명석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합격자 1 interview

전략적 공부방법이 중요합니다.

제15회 법무사 수석합격 백승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소개 한다면 ?

특별히 자신만의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와 주위 합격자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최소 하루 10시간 – 12시간 정도를 공부에 입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더 집중하기위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 – 전화, 친구와의 약속, 통근시간 등 – 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의 공부방법이 나에게 효율적인지 따져보고, 다른 분들의 좋은 공부방법을 참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의 시험형태가 서로 다르니, 공부방법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차때는 이론 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출문제 경향을 보고, 출제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기본서를 보았으며, 기본서는 문제를 풀고, 오답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정리하는 수준에서만 보았습니다. 문제집 한 번 풀고, 오답체크하고, 다음에는 오답중심으로 2~3번 더 풀어 보았습니다. 다시 풀 때 답을 알 수 없도록, 모든 지문에 동그라미표를 쳐 놓으시면 지우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여러번 볼 때 용이합니다. .

2차는 단순암기보다 이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주관식 논술의 답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심재광, 김현민 형님과 쉬는 시간에 서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공부했고, 이로 인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1차와는 달리 기출문제와는 다른 문제가 나오므로, 여기에 대비한 생각을 많이 해 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위주로 단권화하였고, 단문지와 판례집은 기본서를 보충하는 수단정도로 이용하였습니다.

• 합격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

1차 시험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밖에 쉬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고단한 상태이고, 6개월이 지나자 목표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또한, 1차 합격했다는 우쭐함에 1차 끝나고 동차로 2차 시험보기까지 공부도 안되며, 지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광형님 모친상 당하셨을 때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가지도 못했던 점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무시하면서 생활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 수험생활 공부기간은 ?

2007년 12월 15일에 서울법학원의 집행법을 시작으로 2008년 6월에 1차 시험에 합격, 그해 9월에 2차 동차시험 떨어지고, 2009년 9월에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수험생에게 조언 한 마디 !

수험기간 중 저는 "힘들다, 지친다~지쳐,"라는 말 참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도 했는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기에 당연히 잘 하실 겁니다. 법무사가 되신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적어도 2차 시험기간 동안은 꾸준히 운동하시어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법무사 학습전략

Learning Guide Book

01 법무사 시험준비 Know-how

■ 1차시험(객관식)

법무사시험의 1차시험 합격을 위해 전략과목과 취약과목을 잘 분별하여 개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차시험 과목이 총 8과목으로 1과목 헌법(20문), 상법(30문), 2과목 민법(40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10문), 3과목 민사집행법(35문),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공탁법(20문)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기준은 각과목 과락 없이(40점) 2차 합격자의(120명) 3배수인 360명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2012년 기준)

법무사시험 과목중 제일 중요한 과목은 민법을 꼽을 수 있다.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일 경우 민법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공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기본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타 과목으로 접근할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며 민법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타 과목을 접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차 과목의 문항 수 비중도 1차 시험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므로 절대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

수험공부 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기출문제(5년) 출제경향 분석과 난이도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한다. 적을 이기기위해서는 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4회~18회 기출문제 민법(총칙)의 경우 일반민법.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등 6단계를 나누어 볼 때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 되었는지 기출문제 분석표를 잘 파악 한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가 있다. 민법총칙의 경우 권리의 주체. 권리의 변동에서 매년 제일 많은 문항수가 출제 되고 있다.
둘째. 합격자 합격수기도 빼 놓을 수 없다. 합격자 합격수기 중 본인과 공부 스타일이 비슷한 합격자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여 수험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90%만 실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

■ 2차시험(주관식)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1차 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복습량이 필요하다.
2차 공부도 1차 공부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에 있어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공부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범답안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서 단권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며 모의시험으로 답안작성의 반복연습이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독학으로도 열심히만 한다면 1차 합격이 가능하지만 2차 시험은 독학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 공부는 개별스터디의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개별스터디 구성을 위해서는 주위 수험생을 많이 알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와 같이 수험준비도 변해야 한다. 3,4년 전에는 시험 출제가 유력한 문제만 뽑아서 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출제경향이 변하여 기본서 전 분야를 정복 하지 못한다면 합격의 영광은 바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성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 이상적인 수험생활은?

◎ 겸손과 성실

자만과 게으름은 수험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특히 강의를 들을 때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하며, 강의내용을 마치 스폰지 처럼 빨아들여야 한다. 작은 물구멍 하나가 전체의 둑을 무너뜨리듯 단 하루라도 게으름 피다가 수험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 1년 만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합격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를 할 때 비록 어렵고 힘들어 도 '할 수 있다 내지 어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경쟁자인 남들도 똑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버티기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절박한 심정으로 1년간의 수험생활을 버티어 내야 한다.

◎ 체력관리 및 아침시간의 활용

체력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며, 단 10분만이라도 걷기 내지 뛰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기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족한 과목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신이 맑은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 단순화된 수험생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3명 내지 4명 정도의 개별스터디를 통한 철저한 수험생활 관리와 절박한 심정으로 합격이라는 한 목표를 향한 수험생들의 일관된 자세, 둘째 열정적이고 성실한 강사의 가르침, 셋째 강의실 및 자습실 환경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의 뒷받침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공동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른 생활은 잠시 다 접어두고 오직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일관되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스터디 구성은 학원가에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 중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터디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가족과 같은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수단원 \ 실시횟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헌법총론	헌법의 의의						
	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1	3		4
	헌법의 보장				1		1
	대한민국헌정사			1			1
	국가 형태와 구성요소		1	1			2
	헌법의 기본원리		1			1	2
	헌법의 기본질서					1	1
	헌법의 기본제도	4	2	2	1	2	11
기본권론	기본권총론		1	3			4
	포괄적 기본권					1	1
	자유권적 기본권	4	4	4	4	7	23
	생종권적 기본권				1		1
	청구권적 기본권	2	2	1		2	7
	정치적 기본권				2		2
	국민의 기본의무	1					1
통치구조론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국회	3	3	2	2	2	12
	대통령	2	1				3
	행정부	1	1	1	2	2	7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1		1	1		3
	헌법재판소	2	3	3	3	2	13
종합문제		1				1	
총 계		20	20	20	20	20	100

■ 제18회 시험 출제경향 및 총평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12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쓰려고 합니다.

2011년 시험에 비하여 2012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2문제 정도가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법무사시험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2011년 시험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는데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을 고려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1차 시험 합격자가 대략 헌법과목에서 6~7문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내용분석 및 학습방향

이번 2012년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2012년에 나온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15개 정도나 됩니다. 부속법률은 공직선거법, 국회법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면서 그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다소 생소한 판례까지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제도 헌법소원의 개별 요건을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보며 특히 판례를 심도 깊게 물어보아서 법무사문제와 법원행정고시문제와의 난이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헌법조문을 묻는 문제도 2문제는 출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무사 1차 시험에서 헌법과목을 기존의 고득점을 받는 전략과목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커트라인 평균을 감쇄시키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합니다. 기존의 평이한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철저한 준비와 헌법과목에 시간배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를 결과만 기억해서는 안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심도 깊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헌법 권순현 박사

03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수단원 \ 실시횟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총칙 상행위법	상인	1	1		1		3
	상업사용인						
	상호	1	1		1		3
	상업등기				1		1
	영업양도	1		1		1	3
	상행위법 총칙	2	2	3	1	1	9
	상행위법 각칙	1		1	1	2	5
회사법	회사법 통칙	1	1	2		2	6
	합병합자회사 등	1		1	2	2	6
	주식회사	12	14	13	10	10	59
어음·수표법	총론	2	4	5	1	2	14
	환어음	1			3	1	5
	약속어음	1	1	1		1	4
	수표	1	1		1	1	4
통치구조론	보험계약	2	1	1	3	2	9
	손해보험		1	1	1	1	4
	인보험	1	1				2
해상법	해상기업조직	2		1	2	1	6
	해상운송		2		1		3
	해상기업위험				1	2	3
	항공운송					1	1
총 계		30	30	30	30	30	150

■ 제18회 시험 출제경향 및 총평

제18회(2012년) 법무사 1차 시험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되어지던 형태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먼저 출제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법총칙 1문제, 상행위편 3문제, 회사법 14문제(주식회사 관해 11문제, 기타 회사법총론과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각 1문제), 보험법 3문제, 해상법 3문제, 항공운송법 1문제, 어음법과 수표법 5문제가 출제되었다. 종래에는 총칙과 상행위 약 4~5문제, 회사법 약 16~19문제, 보험 및 해상법 약3~4문제, 어음(수표)법 약 4~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와 비교하면 수험생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고 있는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의 출제문제수가 매우 많아졌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편, 각 출제문제의 경우 법조문의 내용만으로 출제되어진 문제14문제, 판례만으로 출제 되어진 문제 7문제, 조문과 판례 및 기타 해석의 내용으로 출제된 문제 9문제로 구성되어져 있다. 역시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지는 점에서는 종래의 출제경향과 차이가 없으나, 이번시험의 인용판례는 자주 언급되지 않던 것들이 이전보다 많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난이도의 면에서 보면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정답확률이 20%이하일 것으로 판단되는 상급문제 6문제, 50%정도의 정답확률이 있는 중급문제 10문제, 80%의 정답확률이 있는 하급문제 14문제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2011년 문제보다는 어려웠고 2010년 문제와 같은 수준의 문제이지만 잘 출제되지 않던 부분의 출제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는 상법이 어려웠던 시험과목이었다고 판단된다.

■ 향후 시험준비 방향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판례가 많이 출제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단은 교재의 판례들을 가능한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조문의 출제비중은 항상 과반수이므로 조문을 암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험공부의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 회사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문과 판례의 내용이 중요하고, 어음(수표)법은 조문을 확실히 익혀야 한다. 상행위편이나 해상 및 항공운송편에서는 역시 조문을 확실히 공부하여야 한다. 최근 보험법은 판례의 내용이 두드러지게 출제되는 점에서 조문과 함께 보험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올해와 같이 평소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어지는 경우, 평소 출제빈도가 낮은 법조문을 등한시하였다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출제되지 않던 내용이 출제되어지는 것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확실히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만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 합격할 점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합격하기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주요내용은 어떻게 출제되어지라도 풀어낼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상법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내용의 범위를 일단 정하여 놓고, 그 안에서는 언급되어지는 조문과 판례들은 철저히 암기하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이상수 박사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수단원 \ 실시횟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민법총칙	민법일반	1		1	1	1	4
	권리의 주체	4	2	2	5	3	16
	권리의 객체	1		1			2
	권리의 변동	3	3	4	2	3	15
	조건과 기한, 기간	1	1		1	1	4
	소멸시효	1	2	1	1	1	6
물권법	물권법 일반	1			1		2
	물권의 변동		2	4	1	1	8
	점유권	1		1			2
	소유권	3	4	3	4	3	17
	용익물권	2	2	1	2	2	9
	담보물권	1	2	2	1	2	8
채권총론	채권의 본질과 목적	2		1			3
	채권의 효력일반						
	채무불이행	2	1	2	1	1	7
	손해배상과 책임 재산의 보전	1	2	3	2	2	10
	채권자지체 및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1	3	1		1	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1	1	2		5
	채권의 소멸	3	2	2	3	2	12
채권각론	계약총론	1	2		2	3	8
	계약각론	3	4	3	2	7	19
	사무관리						
	부당이득			1	1	1	3
	불법행위	1	1	1	2	1	6
친족법		3	6	2	3	3	17
상속법		3		3	3	2	11
총 계		40	40	40	40	40	200

■ 제18회 민법 총평

제18회 시험의 출제경향은 총칙 9문제, 물권법 8문제, 채권총론 6문제, 채권각론 12문제, 친족상속법 5문제 등 총 40문제가 출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무사 민법에서는 민법 전 분야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특히 민법총칙과 물권법에서 절반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친족상속법도 만만치 않게 출제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경향 내지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문을 단순히 묻는 문제도 여전히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판례문제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사례형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풀어내기 까다로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신판례의 내용과 조문 및 민사특별법의 내용을 아주 세밀히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2013년 제 19회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러한 출제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법무사 민법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민법 전반을 골고루 철저한 이해를 동반한 완벽한 정리를 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법조문 및 민사특별법의 내용 및 최신 판례의 내용도 아주 상세히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음자등을 이용하여 암기사항 들은 철저히 정리하여 실전 시험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야만 정해진 시간 내에 만점내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법 학습방향

◎ 전체 체계의 중요성

민법은 그 전체의 개관을 통하여 미리 그 뼈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의 체계를 잡고 있어야만 2차 시험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이는 이론수업을 진행할 때 매 단원마다 개관을 이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전체 개관의 학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의 중요성

법학은 해석론이라는 시각에서 법조문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조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조문의 내용을 친숙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조문 상호간의 연결이나 조문의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체크도 하여야 한다.

◎ 판례의 중요성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므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 그 결론 부분들을 완벽히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판례 및 특히 최신 판례는 기본이론시간이나 문제풀이 내지 마무리 특강 등에서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

◎ 마무리 정리의 중요성

평소에 습득했던 이론들을 시험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몇 회독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막바지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풀이 및 마무리 요약정리를 할 때에는 핵심이론 요약정리 및 판례와 조문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 기출문제 등 문제풀이의 중요성

법원관련 시험은 그 기출문제의 호환성이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박스형이나 사례형의 문제처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습득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민법 이준현 박사

OX 문제

1. 민법상의 모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 취소권 · 동의권을 가진다. ( )

해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동의권이 없다.

2. 의사능력 · 행위능력은 행위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안전을 위해 획일적으로 정해진다. ( )

해설▶ 행위능력과 달리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 )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시까지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4.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해설▶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 강박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과 동일시되는 자이므로, 이 경우 상대방은 제한 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한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

해설▶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사 가능하다.

6. 법률관계에서는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이에 의무가 상응한다. ( )

해설▶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예) 동의권 · 면제권 · 추인권 · 해지권 등 형성권의 경우 또는 의무만 있꼬 권리는 없는 경우 예) 법인의 등기의무 · 공고의무) 도 있다.

7.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

해설▶ 제1조의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제정법(성문법)을 의미한다.

8. 사회생활상 하나의 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수 개의 권리가 발행하는 경우를 권리의 경합이라 하는데, 이 때 각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따라서 일방이 소멸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

해설▶ 각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며, 독립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도 그 목적 달성으로 인해 소멸한다.

정답 **1.** X **2.** X **3.** X **4.** X **5.** X **6.** X **7.** X **8.** X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총설		1	1			2
등록사무의 관장과 사무처리자			1		1	2
등록사무의 감독				1		1
등록부, 폐쇄등록부 등 장부	1	1		2		4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공개와 이용					1	1
신고	2		1	2	2	7
등록부 기록						
출생신고	1	1	2	1	1	6
인지신고	1		1		1	3
입양(파양)신고	1	1	2			4
혼인신고		1				1
이혼신고		1	1		1	3
친권(후견)에 관한 신고						
사망신고						
국적의 득상에 대한 통보		1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				1	1	2
국제가족관계등록		1		1	1	3
개명	1			1		2
가족관계등록 창설					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2	2	1	1		6
처분에 대한 불복1	1					1
벌칙과 과태료 처분절차						
총계	10	10	10	10	10	50

■ 제18회 시험 총평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작년시험보다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은 조문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무사 시험기출문제 및 법원승진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예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문이 명확하여 혼동될 여지가 별로 없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출제분야는 총칙과 각종의 신고, 비송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소화하신 수험생이라면 8~9개 정도의 득점이 가능하였던 문제들입니다.

■ 제19회 학습방향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처음 시행되면서 5회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5회의 시험들이 전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특히 2011년, 2012년 시험문제는 지문도 짧고 예규도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 기본에 충실하셨던 수험생들은 8~9문제 정도는 득점을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기본을 충실히

올해 시험문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시험문제가 평이하고 쉬웠다고 앞으로도 같은 난이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문과 기출문제 중요한 예규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객관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회독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문들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더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본서 또는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문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모든 법과목의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반복해서 숙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민법 중 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절차법인 본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법에서 민법 조문을 묻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고르게, 그러나 강약을 조정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배점은 적으나 공부할 양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5회동안의 기출문제와 법원승진문제를 참조하여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 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부하실 때 신고와 기록, 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연결해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 기출문제, 조문과 중요예규를 중심으로 강약을 조정

본과목은 배점에 비해 공부하여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조문과 중요예규를 중심으로 강약을 조정하시는 것이 득점의 핵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설재순 법무사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편	장	절	14회 (08)	15회 (09)	16회 (10)	17회 (11)	18회 (12)	계
제1편 총론	제1장 의의와 종류							
	제2장 집행기관		2				1	3
	제3장 불복			1	1		1	3
	제4장 집행비용		1	1	1		1	4
	제5장 담보.보증.공탁							
제2편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5	5	3	4	4	21
	제2장 집행보조		1	2	1	2	1	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강제경매신청	2	1	2	2	1	8
		제2절 압류절차	5	4	2	2	5	18
		제3절 현금화절차	1	6	8	7	4	26
		제4절 배당절차	3	6		4	2	15
		제5절 경매신청	1				1	2
		제6절 임의경매	1	1	1	1		4
		제7절 형식적경매	1				1	2
		제8절 부동산경매	1			1		2
	제4장 선박등						1	1
	제5장 동산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1	2	1	1	6
		제3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5	3	7	2	4	21
제3편 비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				1			1
	제2장 대체집행			1		1		2
	제3장 간접강제				1			1
	제4장 의사표시						1	1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시설		1		2	3	1	7
	제2장 신청과 심리						1	1
	제3장 신청에 대한		2			1		3
	제4장 채무자의 구제		1	1	2	1	3	8
	제5장 집행		1	2		3	2	8
종 합								
통 계			35	35	35	35	35	175

■ 제18회 시험 총평

제1편 총론에서는 집행기관, 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집행비용 등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제2편 중 강제집행 총설에서는 집행당사자 적격, 집행권원, 집행문,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부분이 주로 출제된다.
집행보조절차에서는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평균적으로 16문제 가량이 출제된다.
유체동산집행에서는 1문제가,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5문제 가량이 출제된다.
비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중 1문제가 출제되고, 보전처분 부분에서는 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각 지문을 분석해보면 판례에 관한 것이 약 35%, 조문에 관한 것이 약35%,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약 30%의 비율로 출제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이므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학습방향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할려면 먼저 민사집행에 관한 조문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여야 하겠다.
판례중에서도 최근의 주요한 판례들은 어김없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판례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또한 내용을 묻는 문제는 실무제요 중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제요를 잘 정리한 기본서를 택하여 평소에 민사집행의 이론과 그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차법을 공부할 때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절차가 어떤 절차인가를 상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편에 있는 불복절차와 관련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출제되는 부동산 집행과 채권집행, 보전처분, 강제집행총설 등은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사 시험의 실무법 과목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민사집행법 이다.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 간의 득점 편차가 가장 심한 과목이 되었다.
이는 민사집행이 실체법에 관한 전반적인 실력을 갖추고 나아가 민사소송에 관한 것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실체법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해당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배병한 법무사

07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 실시횟수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총 칙			1	2	2		1	6
민사비송 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			1	2	1	1	5
	신탁에 관한 사건					1		1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보존 • 공탁 •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1	1
	법인의 등기		1	1				2
	부부재산의 약정							
상사비용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1			2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 업등 기	통 칙	3	4	1	4	1	13
		등기절차	1	1		2		4
		상 호	1		1	1	1	4
		무능력자						
		지 배 인					1	1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4	3	6	3	8	24
		유한회사	1					1
		외국회사				1		1
		유한책임					1	1
보 칙			2	2	2	2		8
총 계			15	15	15	15	15	75

■ 제18회 시험 총평

제1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 수준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 출제경향을 보면 상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상법의 중요한 문제들이 추가로 출제가 되었으나 아직 상업등기법상의 절차적인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아 상법 조문을 묻는 수준에서 출제다 되었다. 작년보다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2문항 정도는 더 득점하였을 것으로 본다.

■ 학습방향

법무사시험에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15문제로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이 과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업무의 대부분이 부동산등기과 상업등기이므로 장래를 위하여 좀 더 공부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이 과목은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서로 다른 두 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각각 공부방법이 달라야 한다.

첫째, 비송사건절차법은 기본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며, 총칙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1차 과목에는 없는 민사소송법적 절차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정리는 반드시 법조문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

둘째, 상업등기법은 상법 실력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개정된 상법 내용에 따라 바뀐 상업등기절차상의 문제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올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시험문제는 개정 상법에 해당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상업등기에 다 반영되지 못하여 다소 문제들이 쉽게 출제되었으나, 내년 시험에서는 개정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므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과목의 비중에 걸맞게 공부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성재 법무사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부동산등기법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1장	총칙	총설						
		등기의 종류	1	1				2
		등기할 사항		1	1	2		4
		등기의 효력	1			1		2
		등기의 유효요건		2	2	1	1	6
2장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소					1	1
		등기관						
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1			1	2
		공개제도	2		1			3
4장	등기신청 절차	등기신청인	3	2	2	1	2	10
		첨부서면	4	6	3	3	4	20
		판결에 의한 등기		1	1	1	1	4
		전자신청	1	1	1	1	1	5
		등기신청의무						
		취득세 등				1		1
		영구보존문서	1					1
		외국인/재외국인	1		2	1	1	5
5장	등기실행 절차	실행절차	1		3	2	1	7
		완료이후절차		1			2	3
6장	이의절차			1			1	2
7장	소유권	소유권보존		1	1	2	1	5
		소유권이전	2		3	4	2	11
		공동소유	2		1			3
		환매특약 등					1	1
		금지사항등기 등	2	1				3
8장	용익권		1	1	2	1	3	8
9장	담보권		1	2	1			4
10장	표제부등기	표제부등기	1			1	1	3
11장	변경, 정정, 말소, 회복	변경등기		1				1
		경정등기			1	1		2
		말소등기		1	1			2
		회복등기	1			1		2
		예고등기		1				1
12장	가등기		1	1		1	1	4
13장	처분제한등기		1	2	1	2	2	8
14장	촉탁등기							
15장	구분건물		1	1	1	2	1	6
16장	신탁	신탁	1	1	1			3
		명의신탁						
17장	그 밖의 등기	환지등기			1	1	1	3
		채무자회생	1				1	2
합계			30	30	30	30	30	150

■ 제18회 시험 총평

항상 그러하듯이 2012년 18회 법무사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은 기본서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기본서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6장에서 16문제, 각론 부분에 해당하는 7장~17장에서 14문제가 출제된 점을 보면 총론과 각론의 비중을 동일하게 보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좀 고민을 하였을 문제를 거론한다면, 구분지상권등기와 관련된 문제, 환지등기와 관련된 문제, 등기신청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문제, 경매 및 공매등기와 관련된 문제, 채무자회생법에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 문제는 정답을 고르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예년보다 좀 많았고 2011년도 17회 시험 당시보다 문제 지문의 양이 반 페이지가량 늘어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수험생들이 정답을 골라서 맞은 문제가 예년보다는 평균적으로 2개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학습방향

그 동안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해서 출제가 빈번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1장의 [등기할 사항][등기의 유효요건–중복등기], 4장의 [등기신청인][첨부서면][판결에 의한 등기][전자신청][외국인 및 재외국민등기절차], 5장의 [등기의 실행절차], 7장의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8장의 [용익권], 9장의 [담보권], 12장의 [가등기], 13장의 [처분제한등기], 15장의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등을 들 수 있는데, 17장의 [환지등기] 부분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출제되니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는 등기법의 전반에 걸쳐서 빠짐없이 출제되는 것이 최근 5년간의 출제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서 전부를 2회 이상 통독하기를 바란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요약집과 객관식 문제집을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같이 공부하면 등기법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필자가 직접 작성한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표를 제공하니 각 장별로 공부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기를 바란다.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OX 문제

1.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관의 날인이 없으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해설▶ 등기란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날인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2.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해설▶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항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작성해야 한다.

3. 공공재단저당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 )

해설▶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한다.

4. 부동산이 아닌 것에는 등기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해설▶ 부동산등기 외에도 선박등기, 입목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상호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등이 있다.

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 본다. ( )

해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에 의한다.

6. 합병 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합병 후 회사 명의로 하기 위하여서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해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의해 하여야 하며,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7. 물적편성주의, 공동신청주의, 서면신청주의에는 모두 예외가 인정된다. ( )

해설▶ 서면주의 예외는 전자신청을 드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굳이 예외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8. 등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는 그 타인에게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해설▶ 이때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등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므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 )

해설▶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한 등기사항으로 인정한다.

10. 노인정에 대하여서는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며 표제부만을 두게 된다. ( )

해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 관리사무소)은 표제부만 둔다.

11.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

해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본다.

12.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 )

해설▶ 가증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13.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

해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14. 점유권, 부동산유치권, 구분임차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해설▶ 점유권이나 유치권, 구분임차권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해설▶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을 등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16. 멸실회복등기는 회복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

해설▶ 멸실회복등기는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정답 **1.** X **2.** X **3.** O **4.** X **5.** X **6.** X **7.** X **8.** X **9.** X **10.** O **11.** X **12.** O **13.** X **14.** O **15.** X **16.** X

09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공탁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 실시횟수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공탁의 법적성질						
공탁의 종류					1	1
공탁소 및 관할	2	1		1	1	5
공탁당사자	1		1	1		3
공탁물		1				1
변제공탁(토지수용)	3	6	4	1	6	20
공탁신청절차 기재사항, 첨부서면	1	1	3	6	3	14
공탁서 정정, 대공탁	1		1		1	3
공탁물지급절차	3	4	5	5	2	19
이자 등 지급절차		1		1		2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		2		1	5
공탁물지급청구원의 소멸	1	1	1			3
집행공탁	2	5	1	3	2	13
보증공탁	2		1		1	4
혼합공탁	1					1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불복절차	1				1	2
열람, 증명				1		1
기타(사유신고)			1	1	1	3
총계	20	20	20	20	20	100

■ 제18회 시험 총평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고, 공탁법은 이러한 공탁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공탁법은 법 조문과 규칙조문이 많은 편은 아니나, 대법원판례,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 공탁법인과 질의회답 등을 포함하면 그 양은 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교제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법령의 해석과 판례, 예규, 선례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공탁법의 이론적인 분량은 많지 않고 각 해당분야의 예규나 선례가 중심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학습방향

그동안 출제된 분석표를 보면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것을 알수 있고,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서면, 공탁물지급절차, 집행공탁, 공탁소 및 관할, 공탁서 정정 등에서 주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약74%)

즉, 공탁의 기본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정정과 공탁물의 지급절차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해당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나 선례를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인 수험대책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꼭 보아야할 중요 행정예규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362호),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제374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제51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제525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26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제528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42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477호),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예규 등은 자주 출제되는 행정예규입니다.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

합격자 interview 2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 놓으세요

-TO DO IS TO BE! 실행이 곧 존재다.-

제16회 홍승숙
(상명여고 88년 졸업)

• 들어가며

15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며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법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법 공부를 시작했다. 법에 대해선 처음 시작하는 공부라 서울법학원에 등록하고 민법 김준호 저 기본서를 보면서 한자가 많아서 난감했다. 책도 무지 두꺼웠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라 의기양양하고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라는 자신감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알아들겠는데 민사집행법등은 먼나라 외국어로 들렸고 우리나라말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어렵다는 걸 느끼고 1차 과목의 조문들과 책의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쉬운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다. 6개월이면 될거라 생각한 1차는 보기 좋게 떨어지고 다음해를 기약해야했다.

2008년 1차 시험을 본 후 곧바로 다시 1차를 준비했다. 잡생각이 많이 나고 졸리거나 하면 8과목 법조문을 전부 손으로 필서를 하였다. 작은 메모장에 적은 내 필체의 조문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틈틈이 읽기 좋았다. 1차는 법조문만 잘 알아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풀린다고 하기에 법조문과 기본서에 충실했다. 그 결과 2009년에 1차를 합격하고 동차를 준비하면서 기본서 1회독과 서류 작성에 중점을 두었다. 생소한 민사소송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은 어렵게 다가왔고 그래도 안다고 자부한 민법도 무지 어렵다는 걸 절감했다. 눈으로 보고 5문항에서 고르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막연히 알거나 정확하게 모르면 한 줄도 못 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차에서는 예상대로 떨어지고 기득권을 향해 총력을 기울였다. 법학도가 아닌 내가 빨리 합격하는 길은 강의 듣고 먼저 합격한 분들처럼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학원 수업에 충실하고 마지막 3달은 고시원에서 하루 13시간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전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결과는 이렇게 내가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 자신과의 싸움에서..

법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이층이 다른 시험에 비해 많은 편이다 나또한 적은 나이는 아니라서 집안일이나 경조사 경제적인 사정 등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고민들은 공부에 방해꾼이 된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된다. 1차 민법 시간에 신교수님께서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찌하면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게는 화두가 되었다. 걱정거리나 고민은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생각들을 접어놓고 책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시험공부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과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TO DO IS TO BE ! 실행이 곧 존재다."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것이고 실행하는 것이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수험기간동안 난 수험생이고 수험생의 존재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처럼 수험기간 동안에는 자신을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론 타협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공부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의는 합격에 큰 도움을 주지만 강의만 듣고는 합격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 추억 만들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인(人)자도 서로 기대어 사는 모습처럼 공부도 혼자서는 참 힘들고 외롭다. 그럴수록 수험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나의 수험기간 중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했다. 같이 식사하거나 차 마시는 것도, 잠시 여담을 즐기는 것도 서로의 스트레스를 풀고 웃으며 잠시 맘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수험기간은 이제 한 장의 사진처럼 예쁜 추억이 되었다. 화창한 봄날 점심시간에 김밥과 음료수를 사들고 학원 뒷산 운동장 벤치에서 나눠먹으며 즐거웠던 일, 피자 등을 사가지고 와서 학원 휴게실에서 떠들며 먹던 일, 점심 먹고 뒷산을 산책하며 웃고 떠들던 일, 한여름 수박을 잘라서 먹던 일, 일회용 커피를 마시며 한껏 여유를 부리던 일등 이러한 사소한 일상이 내겐 그래도 즐거웠던 추억이 되었다. 수험기간동안 참 많이 힘들지만 합격하고 나면 모두 추억이 된다는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실감난다. 얼마 후면 어쩜 나도 "공부할 때가 좋았지"라고 할 때가 있으리라.

• 힘들수록 즐기자.

맨 처음 생각한 것보다 수험기간은 길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수험기간동안 공부를 즐겨야 한다. 잡생각이 들 때마다 나중에 나는 이런 합격수기를 쓰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운을 내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했다. 또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처럼 끝까지 가기위해서는 체력관리를 잘해야 한다. 나또한 체력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헬스장 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워 러닝머신을 하면서 조문들을 읽고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아침에 눈뜨면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세수도 안하고 헬스장가서 운동하고 씻고 오고, 2차 2순환부터는 그것조차 시간이 아까워 헬스장을 그만 다니기도 했다. 그래도 점심 먹고 산책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들과

차 한잔 즐기고 떠드는 여유는 가졌다. 또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가르쳐주신 박효근 법무사님은 “자신은 공부하는 기계다.” 라고 하면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법무사님도 일요일은 쉬셨다고 한다. 나는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고 그동안 못한 것들을 하였다. 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늦잠을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일주일의 재충전을 하였다. 물론 일요일에도 오전이나 오후 몇 시간은 책을 놓지 않았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느 분은 일요일에 젤 많이 공부하셨다는 분도 계시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반나절이상은 자신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힘들수록 웃자. 자습실이나 독서실에서 내가 젤 듣기 싫은 소리는 한숨소리였다. 힘드니까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그 소리는 주변사람들에게도 기운 빠지는 소리로 들렸다. 적어도 내게는 그 한숨소리가 힘겨웠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에게 한숨소리 안내고 웃으려 노력했고 씩씩한 모습 보여주려 애썼다. 옆의 수험생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이고 지쳐보이는 내색은 되도록 안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와 같이 공부한 3인방인 미애와 은지는 다행히 만나면 항상 웃고 즐거웠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떠들면서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내가 웃어야 내가 덜 힘들고 힘을 낼 수 있다. 학원의 관계자 한분은 나를 ‘탱크’라고 하신다. 아마도 평소에 내가 지친 내색 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항상 학원에서 볼 수 있어서인 것 같다. 난 그 탱크라는 말이 고맙고 대견하다. 수험기간동안 나는 다른 이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다행이다.

• 자신감 만땅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 결심한 초심이 있을 것이다.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한다. 자만은 금물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내가 탱크나 불도우저로 불린 것은 건강한 모습에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지칠 줄 모르고 돌진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다. 이정도면 되겠지하는 안일
함에 빠지면 안되지만 내가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수험기간은 짧아지리라 믿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크스를 갖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뭔가 깨지거나 떨어지는 것들에서 힘들고 초조할 때는 그런 것들이 불길한 생각을 부른다. 컵을 떨어뜨려 깨지는 등 사소한 일상에 참 많이 예민해진다. 조금만 덤덤하게 너그럽게 지나가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러한 생각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좀 수월한 수험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험보기 얼마 전 저녁에 걸어가다가 내 운동화위에 묵직하고 푹신한 것이 발등에 걸렸다. 내려다보니 뚱뚱한 생쥐였다. 너무 놀라 소리 지르고 징그럽고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다음날까지도 그 느낌이 계속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았다.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기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시험합격에 ‘딱 걸렸어’ 하면서 사소한 자신감으로 생각을 전환하니 그 느낌이나 생쥐가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감이나 긍정적 마인드는 스스로를 덜 지치고 덜 힘들게 해주는 것 같다.

• 마지막으로

긴 여정동안 내게는 참 좋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 항상 당신딸은 똑똑하고 예쁘다고(?) 믿으시는 울엄마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들, 나의 수험기간동안 끝까지 내 옆에서 힘들때마다 내손을 꼭 잡아준 정현, 웃음과 따뜻한 커피로 넉넉함을 전해주신 유마담 병규아저씨, 젊은 활력소 이사장 병철, 이쁜 인형 정화언니, 아들을 무지 사랑하는 현민, 항상 열공하는 뒷모습을 보여준 은경, 경상도 사나이 경원, 늘 나를 신경써준 홍옥기법무사, 그리고 2차 수험기간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삼인방 미애와 은지, 더구나 미애가 수석의 영광을 안아서 더 기쁘고 행복하다. 참고로 공부방법은 수석합격자의 합격수기가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를 걱정해주시고 또 내곁에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엄마와 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과 사랑에 대해, 또한 나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맘을 전하고 싶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

제17회 수석합격 박여라

11월 23일 저녁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점을 보러갔습니다..한 과목이 과락이 될 것 같아 떨어졌단 생각에 시험본 후로, 학원홈페이지에도 안들어가보고, 합격발표일도 몰라 합격발표일만, 남편에게 보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25일이라해서, 합격날짜도 25일 인 줄만 알았었던 와중에 집에 힘든 일이 있어 점을 보러갔다가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았더니, 합격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합격여부보다는 떨어지면, 다시 계속 도전할 것인지, 포기해야 하는지가 더 궁금했었어요.ㅎㅎ 그러고나서,?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었고, 너무 기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수석으로 합격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구요.,제가 정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미천한 실력에 이러한 글을 쓰기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어떻게 공부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아,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중심으로 할께요. (성적이 좋지 않았던 과목에 대해서는 안 하는게 도움이 되지겠죠..^^)

우선, 저는, 2009년 1월부터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구요,
그해 6월에 시험이 있었지만, 마지막 모의고사만 보았었는데, 반타작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자신이 없었고해서, 그 해에는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0년 모의고사에서도 그리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정말 모의고사를 보는데, 기억도 안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밖에서 나는 잡음 소리만 자꾸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시간은 촉박하고 했었더랬어요. 당황하니, 문제를 더 못풀겠더라구요...문제 자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연습할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게 아마도 시험 보기 3개월 정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약간의 감을 잡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문제를 빨리 체크하고, 지문이 긴 것은 예상했었으니, 길어도 당황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긴장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법과, 기타 과목에서는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풀고 대신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검토하면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오답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물론, 항상 끝까지 검토를 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사집행법의 경우는,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워낙 힘든 과목이라, 차근차근 침착하게 하느라, 이 시험시간에는, 시간이 거의 딱 맞게 풀었어요. 민사집행법때문에요.

그러고는 1차에서 평균 85점으로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저는 1차 준비는, 정말 과목 수도 많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돌아서면 까먹고 까먹고, 정말 그럴때마다 너무 막막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갈때까지 가보자.,., 한 번 외울때까지 외워보자.,하면서, 잘 안 외워지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잘 까먹는 부분을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밥먹을때도 식탁밑에 깔아두고 외우고, 화장실에도 붙여두고 양치하면서도 외우고, 차안에도 붙여두고, 냉장고에서 물꺼낼때도 냉장고에 붙여둔 것 또 보고, 1분이라도 내 눈을 쉬게 하면 불안했죠..또, 동영상강의를 녹음해서,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또 듣고, 화장실갈 때도 듣고.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티끌모아 태산이라 하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1월부터 3월까지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강의까지만 듣고, 4월부터는 혼자서 민법(김준호 저), 상법(이상수 저), 부동산등기법(유석주 저)을 기본서 가지고 중요도 순으로 비중을 두면서, 시간안배를 해서 8월까지 계속해서 보았고, 9월부터는 12월까지 여기에 민사집행법과 헌법, 공탁법을 추가해서 6과목을 돌려보았습니다. 4월부터 보던 과목들은 부교재(민법 이준현 저/상법 이상수 저/부등법 유석주 저)로 좀더 핵심정리된 내용으로 보아 부담을 줄이고, 민집과 헌법 공탁법은 처음부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책으로 보았습니다.
이틀로 나누어 양은 많이 못보더라도 감을 잃지 않도록 했고, 연습장에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양을 줄여 정리를 하고, 그 다음다음날 볼 때 한 번 쭉 보면서 복습할 자료로 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가족관계등록법과, 상업등기법을 시작했죠. 학원 동영상강의를 전과목을 듣고, 복습하고, 했죠.
1차는, 양이 많으니 만큼, 회독수를 많이 해서 기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동영상강의를 2배속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기본적으로 3번이상은 돌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잘 귀에 안들어오는데, 몇 번 듣다보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문제풀이강의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다져지지 않은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풀이전까지 기본강의와, 기본서를 충실히 보았던 것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고, 다져져서, 스스로 문제풀이과정이 끝난 후에는,

많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본서를 내내 보는 동안 문제집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았고, 기본서만 보는 것이 때론 너무 지루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충실히 하면, 문제풀이하면서, 정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시험장갈 때까지 문제풀이 이전에 들었던 전순환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혼자 그 부분 문제집으로 정리하고 틀린 문제 체크하고 시험직전에는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들만 다시 한번 교재 보면서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차시험을 치르고나니, 성적은 안정권이여서, 2차를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동영상강의를 바로 듣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무튼 아직 1차 발표도 나지 않았고, 마음이 괜히 붕뜨고, 이제 겨우 1차라 끝났을 뿐인데, 자꾸 마음이 잡히지 않고, 책이 잡히지 않더라구요,,,그래서 동영상만 보다가 합격자발표일까지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합격자발표 후에도 저는 그냥 1차 합격한 마음에 너무 좋은 생각만 들고, 2차 동차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시험 삼아 시험을 본다 생각이 들고해서 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2차 동차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까지 떨어진 것 확인하고 나서야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제대로 보냈다면, 이번 시험 보고 나서, 2달 동안 발표일까지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은 안겪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4월까지 민법이외 다른 과목들은 기본서 1회독밖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순환부터는 학원근처 고시원으로 옮겨,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기본서를 다시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순환, 3순환 시험을 보면서 내내 형사소송법, 형법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특히 1차에 없었던 과목이라 더 그랬죠.

1순환부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는 2순환때부터 고시원에 와서, 시험을 보았는데요, 시험은 1순환때부터 계속해서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험을 보면, 우선 그 논점은 중요한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게되고, 시험 후 또 한 번 답안으로 확인하게 되고, 다음 날 채점된 답안 보면서 다시 한 번 보고, 최고답안과 비교해보고하니, 3번 이상은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오래 가더라구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5월부터 2순환이 시작되고, 오전에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독서실에서 시험본 내용 정리하고 오후에 강의를 동영상으로 2배속으로 2시간에 끝냈고, 서류작성 과목을 제외한 5과목을 모두 보았습니다.(양은 적었죠) 눈으로만 보았고, 펜으로 따로 정리하거나 할 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스트으로 체크해두었다가 다음에 볼 때 복습차원에서 다시 보기만 했어요. (동영상도 2차에서는 1번 이상 볼 시간이 안되더라구요..)

3순환때는 동영상제공이 안되서, 오전엔 시험보고 실강듣고, 오후에 시험본 내용 정리하고 서류작성 과목을 제외한 5과목을 이틀로 나눠보았습니다.

9월달 들어서는, 부교재와 지금까지 받았던 자료들, 다시 한번씩 보면서 체크하고는, 시험 보기 전에 바로 볼 자료들만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1회독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볼 자료들 체크해놓고, 시험장에서 그 순서대로 쭉 다시 한번씩 눈도장찍어 주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은, 예비순환에서 기본서 (김준호 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해 주셔서, 정리해 주신 대로 보아야 할 것만 2순환 시작 전까지, 혼자 보았구요, 2순환때부터는, 박효근 법무사님께서 제시해주시는 대로 부교재와 자료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도 교안이나, 사법연수원자료를 더 구해서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양을 늘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시는 자료 소화하기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고민만 하다가 더 보지는 못했습니다.(게으른 탓도 한 몫!)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8월엔 일요일마다 민법에 올인해 기본서를 1회독 하고, 기본서사례들을 2번 다시 보았습니다 . 다른 책이나 자료들 찾아서 볼 시간도 없었고, 기본서에 충실해야 한다 하셔서, 차라리, 보던 것 계속 보자하는 생각에 기본서를 한 번 더 보았죠..

민사소송법은, 우선, 저는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폈어요 정리를 한번하고 다시 보았는데도, 자꾸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논점과,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볼때는, 논점과, 결론정리한 것을 보고, 판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좀 편하더라구요..

이 방법이 괜찮았는지, 학원시험볼 때도 성적이 괜찮았고, 실제 시험에서도 58.5점을 받아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과목이 되었어요.

민사서류작성과,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은, 2, 3순환 강의 듣고, 복습하고, 8월 달에 2주~3주 정도 동안 매일 하나씩 서류작성해보고, 9월들어서는 시험이 코앞이라, 다른 중요과목들 정리하느라, 계속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 교수님들 조언해 주시는 것들을 귀담아들었구요, 제시해주시는 대로, 따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저희 합격하게 해주시려고 항상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교수님들을 믿고 따랐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글도 못쓰는 사람이 써내려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족들게 정말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구요, 매일 도서관에 왔다갔다 출퇴근시간에 저를 태워오며가며, 도와준 동생에게 고맙고, 아이들, 제 남편 까지 보살펴 준 엄마께 정말 감사하고, 엄마노릇, 아내노릇 제대로 못해, 고생한 우리 아이들,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구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합격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22개월의 학원수험생활을 마치며

제18회 합격 차경진

합격자 4 interview

• 들어가며

저는 2010년 11월 서울법학원 야간 직장인 종합반(근로자환급과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무사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능할까 스스로 반문하고,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학원수강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 학원수강생활을 시작하고, 하루 단 30분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결석은 하지 않는다.

제가 서울법학원 법무사 대비 종합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 저 자신의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오랜 시간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은 그리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장인들은 격무와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등 수험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는 업무, 직장생활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의 경우 역시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책 한 권 보는데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험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수험생활을 철저히 하기 위한 세상과의 적절한 단절이 필요하였고, 그 단절을 지켜 줄 굳은 의지와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퇴근 이후 철저하게 학원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1차 시험을 볼 때까지 서울법학원에서 개설한 1차 대비 모든 과정을 수강신청하고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듣게 됨으로써 항상 긴장하고, 직장 생활로 소홀해질 수 있는 공부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수업시간에 최대한 필기를 한다.

수업 시간에 마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는 듯이 팔짱을 끼고 허리를 뒤로 제끼고 수업을 듣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반은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격무에 시달린 후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수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지나온 후 생각해보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1차 종합반 수강 시절 당시 각 과목에 임하면서 교수님들이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하면 반드시 필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공부하는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필기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업시간에 혹 지나가는 말씀을 필기하기 위해서 괴발개발 글씨를 쓰게 되고, 나중에 들여다 보면 저 자신도 무엇을 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수업시간에 항상 필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 교수님들을, 교수님들의 강의 및 교수님들의 교수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저는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 수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왜 좀 더 일찍 서울법학원에 오지 않았을까 후회하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질문, 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쉽게 해결되고 이해가 되었던 강의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감동스럽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 합격생도 아니고, 시험 출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바로 서울법학원의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중 교수님들의 강의를 60%만 이해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교수님들이 지시하는 방법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이에 자신의 노력이 더하여져 합격은 필연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 학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따라간다.

저는 1차 수험을 직장생활과 병행하여야 하였고, 수험생활에서 특히 직장인에게 초지일관을 지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간의 직장생활 경험에 비추어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0년 11월 수강신청하면서 1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서울법학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모두 따라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얽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 너무도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생활에 대하여

◎ 공부 방법

위 1항에서 밝힌 사항은 제가 1차 시험 대비를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1차 시험 공부 방법론과 관련하여 남과 달리 특별하게 수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시간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것 말고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7일간 집중적인 공부였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때문에 강의 시간 외에 따로이 시험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사실상 강의를 듣는 시간만이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저의 공부시간이었고, 집에 도착하여서는 피곤하여 바로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어서는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법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60점을 갓 넘는 수준이었고, 저는 당시 저의 점수에 크게 상심하지는 않았지만 – 어찌 보면 직장인으로서 그와 같은 모의고사 성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스스로 위로하였던 것 같습니다. – 다만 정말 한 번 열심히 공부해 보고 1차 시험을 보고픈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시험 일주일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11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았고, 시험(2011년 6월 25일)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모두 7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일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본서를 볼 수도 없고, 따로 정리노트를 만든 것도 아니어서 고민 끝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공부했던 문제집 8권만을 들고 2011년 6월 18일 토요일 아침 서울법학원 지하 자습실을 배정받아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7일간 모든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리라 다짐하였고, 전체 페이지수를 토대로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약 13시간) 및 공부할 수 있는 일수(7일)로 나누어 보니 1 시간 당 약 100페이지를 보아야 하였고, 이를 다시 분단위로 환산해보니 약 1분당 1장, 한 페이지당 약 30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진만큼 그 부족분을 만회하여야 하였고, 저는 그 방편으로써 7일 동안에 문제집 8권을 다 보아야 하였으니까요.

10분 단위로 공부 속도를 체크해나가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속도를 내어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여 풀어나갔고 진정 온 정신을 집중하여 어떻게든 당초 목표한 시간당 공부량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주일에 전과목의 문제집을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7일간 내에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문제의 지문, 답의 지문을 최대한 머리 속에 구겨 넣으면서 문제집 8권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1차 합격의 요인

첫째, 모의고사 등 성적이 나빠도 굳이 그러한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평균 100점이 아니라 컷 라인이 목표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에 비추어 충분히 컷 라인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예습 복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더라도 학원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서 각 강의 시간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7일간 내에 문제집 8권을 일독할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7일간 집중하여 문제집이라도 전과목을 일독하였다는 점입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장에서는 보다 기억에 생생한 지문과 정답을 적지 않게 고를 수 있었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각 자의 조건에 맞게 자신의 공부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다양한 공부방법이 목적하는 목표는 시험 전과목을 얼마나 단 시간내에 일독 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켰는가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2차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2차 수험생활에 대하여

◎ 학원 수강의 선택

2차 수험 방법도 1차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1차에 합격한 후 직장을 포기하고, 수험에 전념하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끝에 서울법학원 법무사 2차 대비 1년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1년 과정을 등록한 이유는 서두에 밝힌바 있듯이 수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수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 비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2차 시험의 특성상 더 큰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만 전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는 혼자 공부를 해도 된다는 말들을 하였고, 저는 잠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 혼란스럽기도 하였지만 저 스스로 무척 게으른 면이 있었고, 혼자 조그만 책상에 앉아 10시간 이상을 버텨 내어야 한다는 것이 무척 거부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동차반이 시작된 지 3주 정도 지난 무렵 1년 과정에 등록을 하고, 수험 공부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을 날려 버렸습니다.

◎ 순환별 공부 방법

처음 동차반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점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눈으로만 읽고 있고 머리로는 전혀 읽고 있지를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고 있으니 불과 5분전에 읽은 것도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효율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차반이 끝나고 17회 2차 시험을 본 이후 예비순환과정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및 1순환까지 공부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순환 민소법강의가 시작되면 강의를 1시까지 듣고, 이후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민소법 과정 중 3분의 1 기간 내에 전(前)과정인 동차반 민소법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배속으로 최대한 빨리 수강을 완료하고(1년반 과정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3분의 1 기간 내에 민소법 수험서를 읽는데 집중하고, 마지막 3분의 1 기간 내에는 실강을 수강한 이후 현재 과정인 예비순환의 민소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한 순환당 4회독의 효과가 있었고, 이해의 폭이 깊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1순환까지 하고, 2순환부터는 수험서를 읽고 정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순환부터는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2순환부터는 그날 배운 과목을 그날 복습하는 공부법을 버리고, 최대한 빨리 그 과목의 책을 선행하여 정리한 후, 그때까지의 나의 지식으로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별도로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인데 이는 모의고사로 객관적 평가를 저 스스로에게 내리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이후에는 민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민법 1독을 마쳤고, 민법 강의 중에는 다음 시작할 형법을 공부하고, 형법 강의 기간 내에는 형소법을 공부하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니 처음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가 점차 강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성적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더군요. 즉 예를 들어 형법 과목 실강이 끝나갈 무렵이면 물론 실강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책을 정리한 지가 벌써 약 3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일주일 내에 본 부분은 기억이 생생하고, 2주를 넘기면 알듯말듯하고, 3주를 넘기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막바지 2주일 내에 전과목 3회독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수험전략(박효근 법무사님이 강의 내내 강조하였던 것입니다)이 왜 그래야 하는지 2순환을 마쳐가면서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수험공부는 동영상강의는 접고, 오로지 실강과 책 읽기 위주로 변경하고, 따로이 서브노트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오로지 책에다 정리를 해가면서 시험보기 2주 내에 3회독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주 내에 법무사 2차 시험 전 과목을 3회독 하려면 1시간당 얼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계산해 보니 처음 1주일은 시간당 약 100페이지(50장)이고, 나머지 1주일은 시간당 200페이지(100장)를 읽어야 하였습니다. 저의 2순환, 3순환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 막바지에 이에 근접한 효율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많이 듣고, 회독수가 차 오르는 3순환에 이르자 어느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읽기도 전에 목차가 머리 속에서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 공부시간과 건강

2차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시험 막바지 마지막 온힘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순환까지 대략 2012년 6월 초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하루 2시간 정도 검도를 하여 체력을 다졌습니다.
나중에 이 체력이 바탕이 되어 큰 무리 없이 3순환과 시험 보기 2주 전의 과정을 견뎌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간은 예비순환, 1순환까지는 하루 약 12시간 정도를 확보하였던 것 같고, 3순환에서는 약 14시간 정도,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시험 당일까지는 약 15시간에서 16시간을 확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도 공부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주 2, 3회 검도를 한 시간을 일요일로 보충하였기 때문입니다.

• 마치며

짧게 쓰고자 하였는데 그간의 수험생활을 대략적이나마 조금은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생각보다는 긴 장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에게, 특히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합격하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합격에 이르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오로지 수험생 분들이 찾아야 할 각자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저희에게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유석주 법무사님, 배병한 법무사님, 박효근 법무사님, 김영환 교수님, 송춘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 수험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아내 정진숙과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중퇴에서 법무사 합격까지

제18회 최연소 합격 권진혁
(19세)

• 들어가며

우선 떨어지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지쳐있었는데 합격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니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스쳐가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좋은 실력과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어린나이에 법무사시험공부를 시작한 경우라 어떻게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써보겠습니다.
2008년 말 무렵 당시 태국에서 살고 계시던 이모부내외의 권유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에 맞춰 과외도 받고 입학할 학교까지 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생각을 하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심했던 강박증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 우연히, 초등학교 5학년때 쯤 아버지께서 '나중에 커서 실력이 된다면 법무사시험에 도전해보라'고 하신 말이 떠올라서 법무사시험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았습니다. 일단 시험응시에 있어서 학력과 나이제한이 없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시고 계셔서 부동산과 법에 관심이 많아서 법무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법무사의 하는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무사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쉽게 허락해주셨고 어머니는 내켜하지 않으셨지만 곧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9년 1월. 서울법학원 3순환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제 수험기간은 시작되었습니다.

• 1차시험

◎ 2009년 1차시험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한자도 잘 모르던 제가 기본강의 종합반을 수강하는 것은 죽을 맛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거의 모르겠고 당시 한시간 십분이상되는 거리를 버스타고 통학하다 보니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졸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하던 한 누나는 '애는 이렇게 잠만 잘거면서 왜 학원에 오지?' 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수강이 한번끝나고 4월부터 서울법학원 자습실에서 얼마간 김준호저 민법교과서 몇페이지를 보다가 곧 시험때까지 학원자습실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는둥마는둥하며 놀았습니다.
6월달에 1차시험을 보러 갔고 28점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을 때라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 2010년 1차시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법학원에서 기본강의를 골라서 계속 수강했습니다. 법은 현실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사회생활경험이 적어서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른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이 풀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성취도를 느끼며 공부했지만 급한 마음에 요약집을 너무 빨리(1월쯤) 보기 시작했고 결국 기본기가 부족하여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66점으로 낙방했습니다. 결국 시험은 기본실력이고 요약집의 암기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위주를 공부를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 어린나이에 너무 자신감에 차있었던 모습은 일종의 자만이었구나... 열심히 하여 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2011년 1차시험

1차시험에 떨어진 후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새로운 2차시험과목을 미리 준비하라는 주변 형들의 조언대로 2차시험 동차준비 종합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예비순환기간에는 박효근법무사민법예비순환강의와 오경조법무사부등법예비순환강의를 동강으로 보았습니다. 11월에 가족과 함께 서울대입구역근처로 이사를 왔고 본격적인 1차준비는 2011년1월에 하기시작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방법을 말해보자면 민법은 김준호기본서를 위주로 보았습니다. 부등법은 유석주기본서와 오영관요약집을 보았습니다. 민법과 부등법은 2차시험까지 염두해두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민집법은 여러책을 다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천교법무사 기본서를 주로 보았습니다. 상법은 김혁붕교재와 문승진 조문판례를 보았습니다. 상법은 휘발성이 강한데 김혁붕회계사강의를 듣고 남들보다 상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 상법을 취약과목에서 전략과목으로 바꾸어 준것 같습니다. 헌법은 황남기교재를 보았고 공탁법은 배병한기본서와 김옥태요약집을 보았습니다. 공탁법은 그해 어렵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사례문제들을 대비했던 것이 주효했던것 같습니다. 상등법은 전성재요약집을 주로 보았고 가등법은 김지후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제집을 좋아하는 체질은 아니라 몇몇과목을 빼고는 주로 끝까지 기본서위주로 보았습니다. 끝까지 기본서로 볼지, 문제집으로 마무리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스타일에 달린 것 같고 시간대비 효율성은 학원의 문제풀이 종합반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친 후 가채점 결과 77.5점이 나왔고 어느정도 합격을 예상했습니다. 시험발표날 77점이 나왔고 기쁘기보단 너무 절박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2차시험

◎ 2011년 동차

1차합격의 기쁨도 잠시, 서울법학원에서 종합반을 끊었다가 결국 민법,민소법강의만 듣고 양에 치어 포기하고 나머지과목을 환불하였습니다. 동차기간동안 민법,민소법외의 과목은 한페이지도 못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는것 테스트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면 채점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었던 스타일로 답안지에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대한것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와서 놀랐고 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이 결국 기득권시절 공부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준 원동력이었던것 같습니다.

◎ 2012년 기득권

민법,민소,형법,민사서류 예비순환강의를 수강하였고 동시에 박승수민사소송법 강의와 김정철형사소송법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1월말쯤에 상당히 안좋은 개인적인 일이 닥쳤고 그 여파로 방황을 하며 1순환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 것이 시험때까지 두고두고 안타까웠습니다. 1순환동안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예전 이두형법무사 동영상강의를 조금 보았고 80년대 곽윤직책을 구해서 읽어 보고 김일수형법교과서도 구해서 발췌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철학과 법논리학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궁금한 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도서관에 가기도 했고 홍영기 고려대학교 형사법교수에게 메일로 논문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차피 시험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시기여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토마코토가 한말처럼 '유효한 쓸데없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순환은 주로 모의고사반 위주로 수강했는데 1순환동안 제대로 진도를 소화하지 못했던 터라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뒤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순환때 했던 연구들 때문에 답안지의 차별성은 생겼는데 막상 알맹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공부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결론과 키워드위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순환때까지도 그렇게 정리하면서 모의고사반위주로 수강했습니다.

시험이 3주정도 남았을 때는 이번에 함께 합격한 김형주형과 저녁마다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날 공부한 것을 서로 빠르게 설명해주고 시험전략을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교재들을 보았기 때문에 반복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략도 잘 맞아 떨어진것 같습니다.

참고로 답안지는 답안 목차에 구애받지 않고 간결하게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답안지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전에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대신 시간이 남으면 문제제기나 검토는 아는 한 많이 적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원래 실전에서 강한 스타일이라 시험장에서 만족할만한 답안지를 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출중하신분들이 많지만 시험장 당일 컨디션이 좋아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 마치며

짧지 않은 수험기간이었고 남 다른 수험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에게 가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여호와 하느님과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저를 이끌고 함께 합격하게 해준 동기 김형주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지영형,이동근형,송기정형,박주헌형,정경헌형,우진선형,오혜경누나,심재광아저씨를 비롯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와 많은 관심가져주신 학원강사님들과 실장님에게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롭고 우울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괜한 짓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해지면 절박해질 수록 합격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중학교 중퇴자인 제가 합격했다면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하게

제18회 차석 합격 김수미
(인하대 경영학과)

• 들어가며

2010년 7월 초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의 수험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첫 기득권에 합격하게 되어 비록 내공은 다른 분들에 비해 낮을지 모르지만 저의 전략적인 수험계획이 현 수험생여러분, 그리고 수험공부를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 수험기간동안의 마음가짐

모든 수험생이 그렇듯, 처음 수험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는 항상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 모든 시험은 1년 동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법무사 시험은 물론 대부분의 타 시험도 1년에 1번 시행됩니다. 저는 곧 그 뜻은 출제위원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의 지식을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또한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 공부가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지금 이순간만 참으면 1년이면 끝날 수 있다고 다독이며 수험생활을 견디었고, 그 결과 1차도 1년, 2차도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학원 커리큘럼을 완벽히 소화하자.

제가 수험기간 중 가장 잘한 선택중 하나가 1년 종합 반에 들어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2차 모두 서울법학원 1년 종합반 학생 이였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때에는 훌륭한 계획서가 되어주었고, 너무 힘이 들어 공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종합 반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방만 메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교수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반드시 예습, 복습을 하여 완벽하게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들자고 생각하였고 그 점이 제 점수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 지금 이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일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고 후회를 하는데 저는 ' 뒤늦게 후회를 하느니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웃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 공부 방법

◎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

교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강의를 듣느냐로 고민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정한 교재,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 한 과목을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한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읽을 때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오히려 나중에는 1회독하는 시간이 더욱 줄게 되고 과목의 이해도가 훨씬 깊어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예습, 복습

제 1차 합격점수는 89점 이였고, 2차 합격점수는 68점 이었는데 나름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습, 복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습을 하게 되면 예습할 때 생겼던 의문점들이 강의시간을 통하여 해소가 되고, 예습할 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강의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이 암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복습을 통해 빠르게 배운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이해 및 암기를 하게 되면서 하루 안에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1순환부터 3순환까지 이와 같이 예습, 복습을 하게 되면 9번 이상 보게 되어 암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생활패턴

종합 반을 수강하면서 예습, 복습이 가능하냐고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는데,학원 3층 자습실에 7시 까지 가서 7시부터 8시까지는 오전에 할 과목을 예습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오후에 할 과목을 예습하였습니다. 보통 하루 진도는 적게는 20페이지, 많게는 60페이지 정도까지 되므로 전 평균을 잡아 40페이지정도를 한 시간 안에 집중해서 속독하였습니다. 예습이라고 해서 그 파트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 빠르게 읽는다.' 라는 느낌으로 하였고, 그렇게 예습을 끝내놓고 오전, 오후 강의가 모두 끝마치고 저녁을 빨리 먹고 6시 반부터 복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습이 '빠르게 읽기'라면 복습은'이해하면서 정확히 읽는다.' 라는 느낌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예습을 해 놓은 터라 정독을 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층 자습실이 10시 반에 닫았기 때문에 6시 반부터 2시간동안은 오전과목, 2시간동안은 오후과목을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할 량이 많았을 때에는 새벽5시에 일어나서 예습을 하거나 10시 반 이후에도 집에 가서 복습이 다 끝날 때까지 자지 않았고, 아니면 쉬는 시간,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예습, 복습을 하였습니다. 2차공부도 똑같은 생활패턴으로 공부하였고 다만 오후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회독하였습니다. 평일에는 반드시 이 스케줄을 지키었고 열심히 한 제 자신에게 상을 주자는 의미로 매주 일요일에는 모든 것을 잊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힘든 한주를 보내고 돌아오는 일요일은 꿀과도 같았습니다.

• 교재 및 강의

◎ 1차

- 헌법 – 권순현 교수님의 기본서 , 판례집, 문제집
- 상법 – 이상수 교수님의 기본서 , 조문집, 문제집
- 민법 – 이준현 교수님의 로고스 기본서 , 조문집, 문제집
- 가족법 – 설재순 교수님의 기본서, 문제집
- 등기법 – 유석주 교수님의 기본서, 조문집, 문제집
- 집행법 – 김경태 교수님의 기본서, 배병한 교수님의 조문집
- 상업등기법 – 전성재 교수님의 기본서, 문제집
- 공탁법 – 배병한 교수님의 기본서, 조문 및 요약집, 문제집

◎ 2차

- 민법 – 박효근 교수님의 기본서
- 형법 – 송춘근 교수님의 기본서
- 형사소송법 – 김영환 교수님의 기본서
- 민사소송법 – 박효근 교수님의 기본서
- 민사서류 – 배병한 교수님의 기본서
- 등기법 – 유석주 교수님의 1차 기본서
- 등기신청서류 – 유석주 교수님의 기본서

제가 정한 이 교재들 외에는 다른 교재는 전혀 보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들을 완벽히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글을 마치며

부족하지만 제 공부 방법을 통해 수험생 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수험 생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자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합격을 한 것도 많은 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서울법학원 원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그리고 데스크직원분들
절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상수 교수님, 이준현 교수님, 김경태 교수님, 권순현 교수님, 배병한 교수님, 유석주 교수님, 전성재 교수님, 설재순 교수님, 박효근교수님, 송춘근 교수님, 김영환 교수님 그리고 스터디 매니저 곽경원, 황인철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험기간 동안 저와 마음으로 함께 하였던 어머니,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버지,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우리 삼촌,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는 내동생 태훈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날 위해 한걸음에 달려 와준 영웅이, 내 소중한 단짝 아영이언니, 나의 인생 선생님 영애언니 그리고 절 기다려준 친구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저에게 힘을 준 언니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보답하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필승전략

Learning Guide Book

01 법무사 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학습스케줄 Type 1 직장인

"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6년차인 나는 35세 남자이다.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2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 상태이다. 전공은 행정학이지만 전공공부와는 또 다른 법과목에 당황스럽고, 전체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 중이다.

- ▶ 학습수준 : 하
-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 시험준비 경험 : 무
- ▶ 전공 : 행정학

Advice

직장생활과 시험공부의 병행은 한마디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남다른 꼼꼼한 학습계획과 실천의지가 있다면 성공이 가능하다. 직장인은 대학생이나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하므로 그만큼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필수적이다. 주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동영상강의를 활용하는 방법들로 과목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이므로 반드시 시간이 없는 중에도 강의 등을 통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금요일 학습 운영

직장인이라면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 먹은 일! 좀 더 시간을 쪼개지 않는다면 합격의 길은 멀다. 우선 출근시간을 이용해 전날 학습한 내용의 요약집을 외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본인과의 전쟁! 가급적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집으로 직행해서 책상에 앉아라. 졸리면 5분만 눈을 감고 쉴 것! 그럴 땐 5분만 졸아도 머리가 개운해진다. 그리고 바로 학습에 들어간다. 정해진 스케줄을 반드시 완수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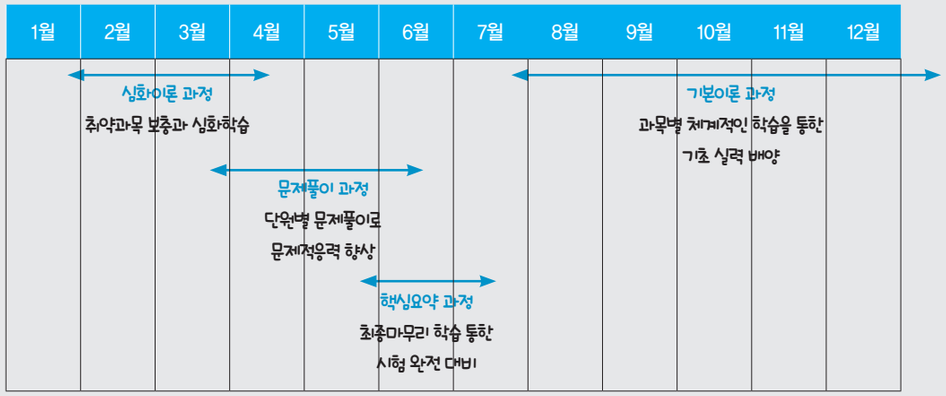
○ 토~일요일 학습 운영

직장인에게 주말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에게는 재충전보다는 에너지를 최대한 소비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주말은 기본이론보다는 주중에 학습한 내용의 심화학습을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주말처럼 공부에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별로 없다.

○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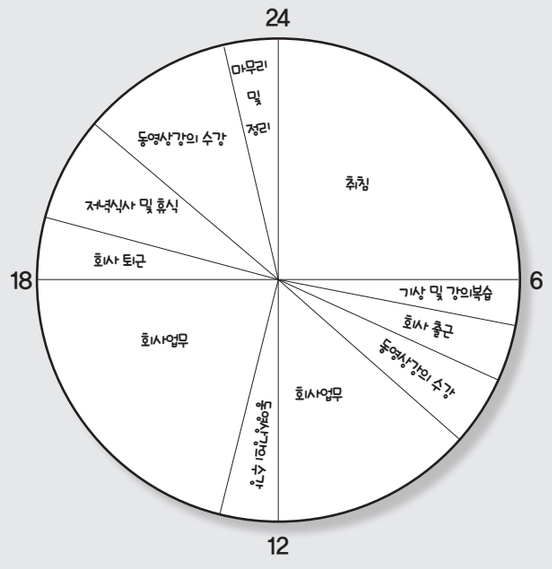
스케줄상 기본이론의 학습과 심화학습까지 어느 정도 되면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본인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모의고사는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본인이 전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느낄 때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연간스케줄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06:00~07:00	기상 및 강의복습
	07:00~08:00	회사출근
	08:00~09:00	동영상강의 수강
	09:00~12:00	회사업무
오후	12:20~13:00	동영상강의 수강
	13:30~18:00	회사업무
	18:00~19:00	회사퇴근
	19:00~20:30	저녁식사 및 휴식
	20:30~23:00	동영상강의 수강
	23:30~24:00	마무리 및 정리



01 법무사 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학습스케줄 Type 2 대학생

"나는 대학생이다"

대학 3학년인 나는 22세의 남자이다. 로스쿨 준비 전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좋을거 같다는 판단에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고, 현재는 법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무작정 법무사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 ▶ 학습수준 : 하
-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 시험준비 경험 : 무
- ▶ 전공 : 경영학

Advice

현재 대학생이고 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우선 방학 중 학원 종합반 수강을 권한다. 요즘 법무사 시험공부는 정보 근접성 없이는 합격이 쉽지 않으므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쌓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여름방학에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과목별 1회독을 한 후 학기 중에 동영상강의를 이용하여 개념내용을 한 번 정리하고, 겨울방학에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실력을 쌓는다면 탄탄한 실력이 마련될 것이다.
그 후 자신의 목표에 따라 마무리 특강 등을 수강하면서 내용정리를 해나가길 바란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토요일 학습 운영

학원 강의 일정에 따라 기본이론을 학습한다. 예습과 복습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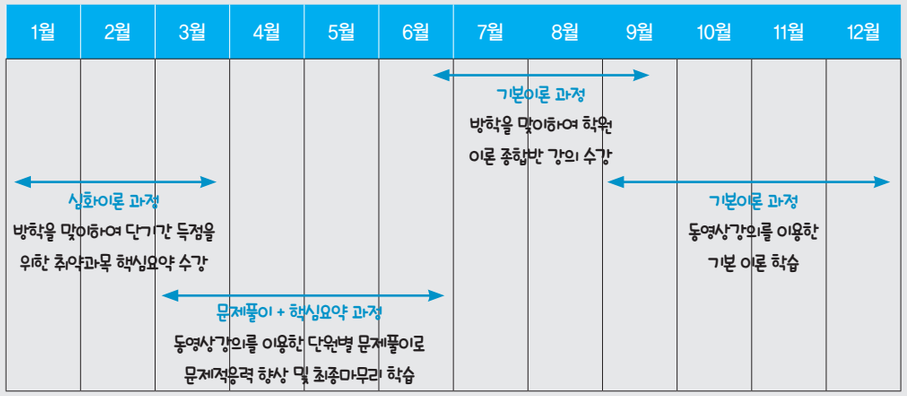
○ 일요일 학습 운영

수험은 장기간을 요하는 레이스다. 따라서 학습시간과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휴식을 취하되 다음 주 일정까지 망칠 수 있는 무리한 휴식은 절대 금물.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취약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생각해본다.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전에는 풀리지 않았던 꼬인 매듭을 풀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취약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조정학습을 실행해보자.

○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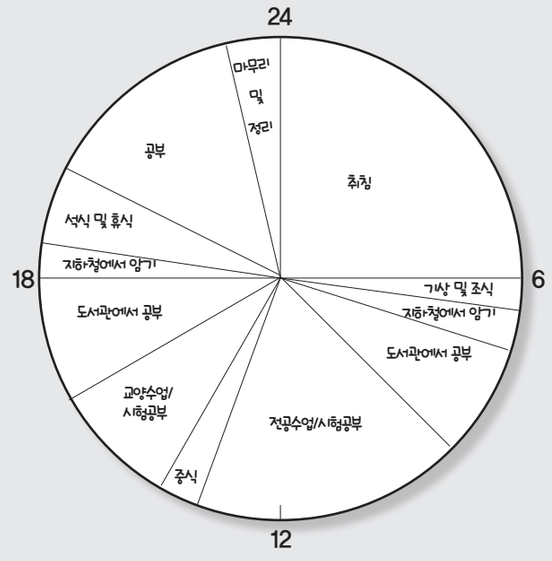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자기 실력을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복습을 해야 한다.

연간스케줄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06:00~06:30	기상 및 조식
	06:30~07:00	지하철에서 암기
	07:00~09:00	도서관에서 공부
	09:00~13:00	전공수업 / 시험공부
오후	13:00~13:30	중식
	13:30~16:00	교양수업 / 시험공부
	16:00~18:00	도서관에서 공부
	18:00~18:30	지하철에서 암기
	18:30~19:30	석식 및 휴식
	19:30~23:30	공부
	23:30~24:00	마무리 및 정리



학습스케줄 Type 3 전업수험생

"나는 전업수험생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인 나는 올해 29세이다. 대학전공은 컴퓨터 공학이고 졸업한 후 잠깐 회사도 다녔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대입구역 수험가에 입성했다.

- ▶ 학습수준 : 하
-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 시험준비 경험 : 무
- ▶ 전공 : 컴퓨터 공학

Advice

이과 계열에 관한 공부에는 이력이 나있지만, 특히 법학에 관해서는 공부해본 적도, 관심도 없었던 상태이므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점에서 법무사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시험에 대한 전략적 지식을 쌓은 후 전문학원에서 수험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퇴직을 한 상황이므로 하루의 대부분을 수험공부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최단기간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성실히 공부해야 한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토요일 학습 운영

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수험 기간 초반에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각 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아야 한다. 보통 학원에서는 2개월을 기준으로 기본서, 문제집, 심화이론 등에 관련된 강의가 개설 · 진행되는데 그에 맞춰서 수험 전체의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오전에는 학원, 오후에는 개인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며, 하루 공부량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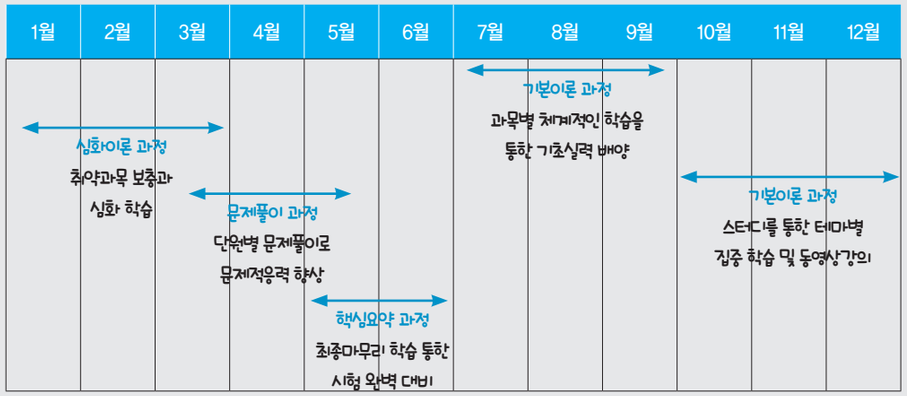
○ 일요일 학습 운영

일요일이라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공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휴식 시간을 갖되 2~3시간 정도만 일주일의 공부를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그 주에 공부한 부분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일요일의 무리한 활동은 내일의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 스터디 활동을 통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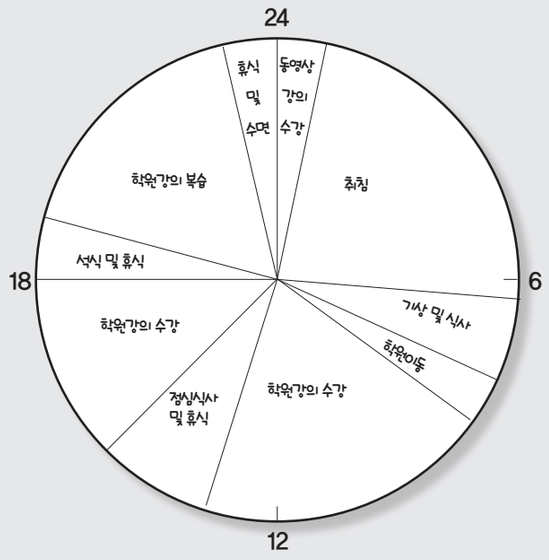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럴 때는 학원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자신의 일정이나 공부 성향에 맞는 스터디를 골라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서 자칫 늘어지기 쉬운 수험생활을 다잡을 수 있다.
특히 2차 공부는 마음이 맞는 수험생과의 개별 스터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간스케줄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24:00~01:30	동영상강의 수강
	01:30~06:30	취침
	06:30~08:00	기상 및 식사
	08:00~09:00	학원이동
오후	09:00~13:00	학원강의 수강
	13: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8:00	학원강의 수강
	18:00~18:30	집으로 이동
	18:30~19:30	석식 및 휴식
	19:30~23:00	학원강의 복습
	23:00~24:00	휴식 및 수면



02 법무사 필승전략 – 최적의 학습스케줄 짜기

■ 1단계 학습계획 세우기

◎ 생활 패턴별 학습유형 선택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주부라면, 전업수험생이라면?
생활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스케줄링이 기본 중 기본이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험생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학원 종합반을 수강할 수도 있고, 동영상강의 혹은 독학으로 승부를 걸 수도 있다.

◎ 월간, 주간, 일일 스케줄

목표는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한 후 먼저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1주, 1일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자. 과목별 진도, 동영상 강의 수강 계획 등에 맞추어 자신이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설정하되 반드시 소화 가능한 분량으로 해야 하며, 과욕은 절대 금물이다. 도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스케줄을 실천하는 기쁨도 생긴다.

■ 2단계 학습계획 실천하기

◎ 꾸준히 실천하기

계획한 학습량을 소화해 내려면 무엇보다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일단 책상 앞에 앉았으면 적어도 2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 태도와 학습 태도는 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1시간 안에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다. 보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과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 스케줄표 점검은 필수 중의 필수다

스케줄표는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수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 학습 진행도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 3단계 피드백 및 계획 수정하기

학습 현황 및 실천도 확인을 통해 내가 계획한 스케줄이 나의 상황과 학습 패턴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체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 스케줄표를 가질 수 있다.

◎ 목표 달성 점검하기

목표 달성 점검은 주간 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지난 한 주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시
1. 목표 달성치 : 80%
2. 달성 소감/미달성 이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 집안 일도 많았고 감기도 걸렸다.
3. 자기 공부 시간 : 목표 10시간 (실행 : 6시간)

◎ 학습 진행 분석하기

긍정 요소에는 내가 잘했던 점, 좋았던 점, 배운 점 등을 정리해 보고, 부정요소에는 내가 못한 것, 아쉬운 것, 실패한 것 등을 정리해서 개선사항을 개선사항을 찾아보도록 하자.

예시
1. 긍정요소(GOOD POINT : 잘했던 점, 좋았던 점, 배운 점)
– 나만의 맞춤 노트 정리를 잘했다.
– 지하철에서 매일 20분정도 민법 조문집을 봤다.
– 12시 취침, 6시 30분 기상을 지켰다.

2. 부정요소(BAD POINT : 잘못한 점, 아쉬운 점, 실패한 점)
– 저녁 시간에 드라마를 4차례 봤다.
– 민법 동영상 강의가 하루 밀렸다.
– 목요일에 과음을 했다. (치명적)

3. 개선사항
– TV를 끊자. 특히 드라마는 피할 것. 차라리 휴식을 위해 보는 경우라면 1회적인 영화나 다큐.오락프로그램을 보자
– 술은 절대 금물. 가볍게 맥주나 와인 한잔 정도는 OK!
– 동영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말자!

■ 수험생 건강관리 이렇게 하자!

◎ 아침식사가 중요하다

아침식사는 뇌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해 학습능력이나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수험생활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달려야하는 장거리 경주.오랜 시간동안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야식은 가능한 삼간다.

한의학에서는 "사상비위(思想脾胃)라 하여 음식을 지나치게 먹거나 그로 인해 비위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쓸데 없는 공상이 많아져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식사를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좋은데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은 가볍게 하고, 저녁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먹는것이 좋다. 또한 포만감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로나 졸음, 체중증강의 원인이 되므로 야식을 피하는것이 좋다.

◎ 바른자세를 습관화 한다.

구부정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는 두통과 함께 뼈, 근육, 소화기 계통이 고장나기 쉬우며 척추측만증(허리구부림증)도 발생하기 쉽다. 특히나 수험생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른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속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준다.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스트레칭은 신체적 피로나 근육의 건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식사후에는 바로 책상 앞에 앉기보다는 잠깐동안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평소 즐겨 듣던 음악도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많이 자는 것보다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시간을 자더라도 숙면한 상태면 피로가 풀리고 신진대사 기능이 왕성해져 두뇌활동이 활발해진다. 되도록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삼가고, 커피나 청량음료 보다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도록 하자.

쉬어가기 TIP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20

1. 추상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2. 목표달성을 위해 마감시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3.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4. "잘 할수 있다"는 자기암시의 힘을 활용하라.
5. 생각과 동시에 입버릇처럼 반복함으로써 자시을 만들어 간다.
6.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주 웃는다.
7.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힌트가 잘 떠오른다.
8. 기회가 올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9.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건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10. 뚜렷한 테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한다.
11. 집중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중간중간 취한다.
12. 하루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몇일에 나누어서 일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13. "이 부분만 한다" 혹은 "이시간까지만 한다"는 식으로 범위와 시간을 정한다.
14. 조금빠른 속도로 걷는다.
15. 러닝머신이 아니라 밖에서 걷는다. 사람이나 풍경등이 풍부한 자극을 준다.
16. 피곤하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한다.
17. 지나친 공복은 금물이다. 뇌는 하루 120그람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18. 콜레스테롤은 집중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19.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함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알린다.
20.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

– 나카지마 다카시 <3분간 집중력 단련법> 중에서 –

쉬어가기 TIP

법무사 합격하기 15계명

1. 매일 일정시간의 공부량을 확보할 것

공부시간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단위시간당 집중도이다. 잡념을 제거할 것.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구호, 좌우명을 책상에 적어놓고 잡념이 발생시 속으로 구호를 외쳐 보자.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시간을 늘려야 한다. 실제학습시간을 종이에 적어보면 10시간 넘기가 어렵다. 그이유는 시간누수가 많기 때문이다. 커피타임, 잡담시간 등을 줄이자. 이것부터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이다.

2. 서브노트작성 혹은 밑줄치기를 할 것

서브작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밑줄치기가 유용. 밑줄치기의 경우 1회독 때는 샤프, 2회독은 파란볼펜, 3회독은 노란형광펜, 4회독은 주황색 형광펜, 5회독 때는 빨간 플러스펜을 쳐서(자를 대고 깨끗히) 마지막 정리때는 주황색 형광펜과 빨간 플러스펜을 친 부분만 읽는다. 1회독때 샤프로 하는 이유는 첫회독이라 중요도 선별의 어려움 때문이다.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밑줄이 줄어들게 되어 정리기에 합격의 강한 확신이 든다.
전과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시험직전에 불안감을 없앨 수 있으며, 시험 전 마지막 1개월 4회독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 시험의 당락은 마지막 1개월에 있다.
이렇게 마지막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여전히 예전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공부(눈으로만 공부)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부가 따분해지며, 슬슬 입사시험에 기웃 거리게 된다. 결국 어쩔수 없이 돌아올 것이면서.....

3.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mind control을 할 것

합격 후의 자기모습을 많이 상상해 보자.

4. 기출문제를 정리할 것

출제교수도 기출문제를 보고 전년도와 수준을 맞춘다. 객관식 문제집을 풀다보면 책들에서 기출문제 제외하면 남는 문제가 얼마 없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5. 객관식 문제집은 틀린 것은 X, 찍은것은 O 등의 표시를 해둘 것

문제집에 이런 표시를 해두면 약1/3정도 분량의 문제만 남아 마지막 정리시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마지막 1개월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 문제를 풀다가 다시 풀 가치도 없는 것은 과감히 문항번호에 XX 표시를 한다.
오답노트도 권장할만 하다. 오답노트는 자주 틀리는 문제의 보기를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는 것인데, 정리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6. 단권화할 것

책을 한권보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서 한 권을 본 후 전체적인 체계가 잡힌 다음에 참고서를 보고 추가할 사항은 기본서 여백에 옮겨 적을 것.
그 다음에는 참고서를 다락에 넣어버리자. 책상에 있는 많은 책이 우리가슴을 짓누른다. 볼 책만 선별하여 책상에 놔두자. 정신안정과 자신감에 도움을 준다.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씩만 두자.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불안감에 편승하여 요약집이니 핵심노트니 하는 책이 난무하지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한 책에서 다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갖고 책 구입을 하지마라. 구입해도 새책은 머리말만 보게 된다.
자신없는 과목이 책이 많은 법이다. 책이 많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시간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중독에 걸린 것처럼 책을 산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진데나. 책값이 고가이므로 자중하자. 제일 한심한 경우는 산책 또 사는 친구이다.

7. 계획 수립할 것

1년은 6개월, 3개월, 1개월로 나눈다. 마지막 1개월은 15일, 10일, 5일, 1일로 나누어 전과목이 마지막 1월중 4회독 되어야 한다. 결국 6개월에 1~2회독, 3월에 1회독, 마지막 1개월에 4회독되어 총 6~7회독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1개월 물리적시간은 1개월이지만 체감시간은 1년에 버금간다. 그리고 바로 이 1개월에 당락이 결정된다. 이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대부분 불합격에 대한 대비로 꾀병인 경우가 많다. 합격의지가 강한 자는 병도 이긴다. 평소에 운동과 비타민제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주자.

8. 법전을 참조할 것

법전을 항상 옆에 놔두고 해당 법조문을 찾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자. 책에 법조문이 나와도 법전을 보는 습관을 들여라.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데 이렇게 학습하면 후회하게 된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명심하자.

9. 목차를 중시할 것

모든 기본서에 목차를 복사하여 해당과목 학습시에 옆에 놔두고 지금 어디를 보는지 찾아보면 공부하자. 이것이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학습이다. 목차를 자주 보면 장, 절 등의 큰제목이 보이고 그에 딸린 내용들을 알게 된다. 부모와 자식관계를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저자는 목차로써 자신의 의견개진의 흐름과 방향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목차에 친숙한 공부를 하면 단편적인 공부를 한사람보다 학습시 남는 내용물이 누진적으로 배가된다. 뼈가 있어야 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0. 문제집을 볼 것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 응용력을 키우자. 기본서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문제집해설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풀 때는 해설과 답을 가리고 풀고, 문제해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므로 답에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풀 때는 짝수, 홀수로 나누어 푸는 것이 좋음. 유사문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빠른 진도가 빨라져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수험생 중에는 단원별로 나누어 이론공부 끝나면 곧바로 해당단원 문제를 풀고 다맞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방금 본 것 기억 못하는 바보도 있나? 이론과 문제풀이에 시간간격이 있어야 진정한 평가가 된다.

11. 바뀌는 법령에 주의할 것

바뀐 법령에서 시험 빈출한다. 또한 판례에도 주의하자. 판례는 오답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교수들이 모든 법학시험과목을 출제할 때 계속 선호한다.

12. 생활을 단순화 시킬 것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관계된 일만하자. 시험기간에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결국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새털 같은 나날이 아니다. 헤어지라는 뜻은 아니고 현명히 대처하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공부를 방해하는 잡다한 여러가지가 상존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써보자. 그리고 해결방안을 써보자.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 문제의 핵심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곤란문제는 합격 후로 미루고 공부에만 전념하자.

13.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기분에 따라 공부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규칙적인 학습을 위해 타이머를 이용하던지, 공부시작 시각, 휴식시간, 식사시간, 공부끝낸 시각을 매일 체크하여 자신의 공부패턴과 총 공부시간 등을 매일 종이에 적어보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개중에는 기분 내키면 하루 15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부터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다. 기분파형 수험생은 수험장수파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14. 모의고사를 보자

학습량에 비해 시험운이 없는 분은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응용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시험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을 속이지 말자. 특히, 2차 시험을 위해서는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15. 합격기를 보자

수험잡지 등에 게재된 합격기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 보고 의지를 굳게 세워야 한다. 합격기를 보고 다아는 시시한 것을 썼다며 코웃음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 합격은 아는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남보다 더 실천한 자에게 온다는 것을.....

쉬어가기 TIP

나만의 슬럼프 극복법

아무리 의지가 강한 수험생이라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슬럼프!

수험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때 도 있습니다. 처음 굳게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긴장감도 방향 감각도 무뎌질 때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고 합격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흔히들 수험생활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법무사 시험준비생이라면 공부자체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집과 회사에서 이런저런 눈치가 보이고 빨리 합격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하게 되니 몸만 자꾸 힘들어지죠. 또한 한동안 공부에 손을 놓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 뿐이랍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합격통지서를 쥐는 그 순간 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먼훗날 법무사가 되어 "아, 진짜 그땐 지금 생각해도 뿌듯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